

중소 수출 보증 한도 100억으로

금융위, 소상공인 부동산 담보대출 특별보증도

정부가 중소기업 수출자금에 대한 보증비율을 100%로 확대하고 보증한도는 1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특별보증을 해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제공하는 중소기업 수출자금 보증한도를 기업당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고 은행에 한정된 지급보증 취급기관을 농업과 수협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수출자금 보증비율도 현행 95%에서 100%로 높아진다. 수출자금이란 주로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무역금융, 수출환어음매입,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수입 신용장 지급보증 등을 말하며 최근 신용경제 여파로 중소기업들이 수출입 금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금경색 여파로 영세 사업자 대출이 위축되고 부동산가치 하락으로 기존 대출에 대한 회수압력도 커질 것에 대비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소상공인 담보대출에 대한 특별보증도 실시된다.

소상공인에 한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 보완차원에서 보

증기관이 심사를 거쳐 전액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제조업과 건설업, 운송업, 광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이면 소상공인으로 분류된다.

금융위는 보증을 제공하면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하락 부담을 덜 수 있어 적극적인 만기 연장과 신규대출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프라이머리 담보부증권(CBO)도 이미 1차로 4천억원이 발행한데 이어 연말까지 6천억원을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정책에 힘입어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올해 8월과 9월 각각 2조6천억원, 2조9천억원에 그쳤던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은 10월에 3조4천억원, 11월에 4조3천억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10월13일에 시작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패스트 트랙)에 따른 대출규모는 지난달 말까지 총 515개사에 1조374억원이다. '키코' 등 통화유선 손실기업에 대해서는 283개사에 6천918억원이 지원됐다.

연협뉴스

주가 '투신권 못매'

코스피 나흘째 하락

연일 이어진 미국 증시의 상승에도 투신권의 대량 매도로 코스피지수는 나흘째 하락세를 이어갔고 원·달러 환율은 3일 연속 상승했다.

4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6.13포인트(1.58%) 하락한 1,006.54로 마감했다. 코스피지수는 19.49포인트(1.91%) 오른 1,042.16으로 출발했으나 오후부터 하락세로 반전

해 장중 1,000선이 무너지는 등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기관은 2천344억원을 순매도한 투신권의 영향으로 1천314억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해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2.52포인트(0.84%) 내린 298.92로, 하루 만에 300선을 다시 내렸다. 주가 약세의 영향으로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7.00원 오른 1,477.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기업 수익성 급락 5년여만에 최저치

韓銀, 3분기 경영분석

기업들이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4일 상장·등록법인 등 1천624개 업체를 분석해 발표한 '3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3분기 국내 기업의 매출은 증가했지만 수익성이 급감했고 재무구조와 현금흐름도 나빠졌다.

3분기 조사대상 기업의 매출액 증가는 작년 동기대비 28.6%로 전분기보다 3.8%포인트 높아졌다. 제조업은 29.9%, 비제조업은 26.4%로 전분기보다 각각 3.9%포인트, 3.7%포인트 상승했다.

매출은 늘었지만 수익은 악화됐다. 매출 대비 영업이익의 비중은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3분기 5.9%로 전분기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분기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된 2003년 1분기(9.0%) 이후 최저치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4일 '최근 시중자금 흐름의 특징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올 1~9월중 코스피(KOSPI) 12월 결산법인 6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순이익률에 영업이익을 내고도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한 기업이 전체의 34.8%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자금이 들지 않아 이익을 내고 있는데도 현금수입은 오히려 마이너스인 기업이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직격탄' 車·조선업 세계 혜택 등 지원책 나온다

車 특소세 인하·경유차 환경세 폐지 검토

정부는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최근 경제·금융위기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업종들에 대해 대폭적인 세계혜택을 비롯한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들 업종의 경영진 등은 청와대측과 직·간접 접촉을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건의해 놓고 있으며, 청와대는 대폭적인 직원 감원 등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이를 적극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자동차 분야는 특별소비세율 인하와 경유차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환경세 폐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을 위한 R&D 비용지원 등의 방안이 집중 검토되고 있다.

자동차 특별소비세의 경우 ▲배기량 2000cc 초과 차량 10% ▲2000cc 이하 차량 5% ▲800cc 이하 경차 면세 등으로 자동차의 크기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고 있다.

경유차는 개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실질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폭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세금을 매겨온 데 대해 업계 반발이 적지 않

았다. 소비세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되면 감세효과를 볼 수 있지만 FTA 발효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데다 세율 감소의 폭이 적은 점을 감안, 조기에 세율을 인하하되 내수 진작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준까지 인하폭을 넓히는 쪽으로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금융위기가 심물위기로 확연히 전이되면서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을 포함해 우리 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내수 진작과 실업 감소를 위해 실물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업계의 동향을 점검하고 있으며 컨틴전시 플랜(긴급계획)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고용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 감원을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면서 "가뜩이나 세수가 줄어 세계지원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상황을 바라며 이번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협뉴스



내년 설 연휴 열차 승차권 사야 하는데 4일 광주역 매표 창구를 찾은 노부부가 연휴기간 열차 운행 시간표를 확인하고 있다. 설 승차권은 1인당 편도 6매·왕복 12매까지 구입이 가능하며, 예약 승차권은 오는 11일 자정까지 반드시 온라인결제를 하거나 역을 방문해 구입해야 한다. 문의는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나 고객센터 1544-7788, 1588-7788번으로 하면 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농협 고강도 개혁 빨라진다

MB 호된 질타... 지배구조 개편·구조조정 등 '받아 놓은 밥상'

조합원 240만 명의 거대 조직인 농협이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호된 꾸지람을 받았다.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농협은 당장 강도높은 개혁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궁지에 몰렸다. < 지배구조 문제 - 역대 회장 모두 구속 = 농협은 1980년대 후반 관치에서 벗어나 중앙회장을 조합장들이 뽑기 시작한 이후 1~3대 민선 회장이 모두 구속된 뼈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특히 3대 정대근 회장은 2005년 12월 양재동 농협 하나마트 부지 285평을 현대차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현대차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30일 징역 5년과 추징금 1천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 때문에 농협의 지배구조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황을 휘두르던 농협회장의 법적 지위가 2005년 농협법 개정으로 비상임으로 격하되고, 구체적 업무 결재권이나 예산권 등이 모두 사업부별 대표에게 넘어갔지만,

여전히 농협회장은 인사권을 통해 농협 실무 전반이나 각종 이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9월 입법예고한 농협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중앙회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부족하다는 비판이 높다. 이에 농협 중앙회장을 명예직으로 하고 인사권을 포함해 모든 권한을 떼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 경제사업 부진 - 제 역할 못해 = 농협의 또 다른 근본적 문제는 농업인의 이익과 직결되는 경제사업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업인들로부터 중앙회가 신용사업 등 '돈 장사'에 몰두하느라 뿌리인 농업·농촌을 등한시한다는 지적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농협 경제부문은 일선조합에서 약 8천억 원, 중앙회에서 약 1천500억 원 등 거의 해마다 1조 원에 가까운 적자를 내고 있다. 그동안 적자 대부분은 은행 등 농협 신용부문의 이익으로 메워져 왔다. /연협뉴스

강만수 장관 "아직 구조조정할 때가 아닌 것 같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아직은 정부가 나서서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을 강제로 할 때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벅커스클럽에서 가진 중앙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건설업계 자금지원을 위해 대주단을 만들고, 조선업계를 위해서는 신속지원제도(패스트 트랙)를 가동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여

가 있어서인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환자인지 아닌지 판단도 어렵고, 당사자가 자금지원을 받고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강제로 수술대에 올려 구조조정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연협뉴스

의·치의학/약학

전문대학원 MDPass 의(醫)학원

차별화된 시선, 유명강사진, 특별초빙, 전문화된 시스템, MDPass만의 합격 노하우

서울유명학원 전문강사진 전격출강!

1명당 1인당 10명씩 배정됩니다.

<p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강사명</p> <p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강사명</p> <p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강사명</p>	<p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강사명</p> <p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강사명</p> <p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강사명</p>	<p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강사명</p> <p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강사명</p> <p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강사명</p>
---	---	---

1월 2일

기본과목 14과목 배정(당첨률 100%)

수능을 공부하면 배미 대학에 (의·치)의사가 될 수 있다!

대학고 재학중인 학생

대학고 졸업생에게만 무료

특히 경제 대학 원생들에게

진학선명회

12월 13일(토) 오후 2시

MDPass 의(醫)학원

☎ 263-5453

북구청 맞은편

☎ 255-9119

전북대 병원 앞

79대 공무직/법원 검사직/기술직/전통시장/농·어·축·수산업 직/북구청 맞은편

서울고시학원

www.sgc.or.kr

514-4560